

대전특강101009a천국과지옥a

20101009a 대전특강 - 천국과 지옥a

(강의:이근호 목사)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천국과 지옥을 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논리적인 차이가 있어요. 천국은 무엇과 상대하느냐 하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나라, 천국의 반대말은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 그러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 땅은 인간들이 사는 곳, 이것은 존재적인 대립이나 차이가 되겠지요.

천국과 지옥을 곁할 때는 지옥과 관련된 천국, 천국과 관련된 지옥에서는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서는 안 돼요. 논리적으로 반칙이 되는 겁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럼 이걸 뭐냐 하면, 기능적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고, 지옥은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지옥이 만들어지는데 천국 따로 만들고, 지옥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천국, 지옥이 병행해서 같이 만들어져요. 자크 할 때 왼쪽, 오른쪽 자크를 열면 한쪽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양쪽 다 갈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천국, 지옥은 하나의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천국, 지옥이 갈라지는 그러한 활동성, 모습에 의해서 천국, 지옥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안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지옥을 보여주게 됩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능적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쉬운 말로 하면, '있는 것'과 '보여주는 것'이에요. 초장부터 너무 어렵지요. 오재석 장로님 오면 다시 하겠어요.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요. 어떤 아가씨가 '나, 남자있어.' 나에게 남자있다니 존재죠. '나 그리운 사람이 있어.' 같을까요, 다를까요? 남자가 있고 그리워하면 같을 텐데 남자가 있는데 '전에는 자주 만났는데 요새 뜬해.' 이렇게 되면 지금의 남자는 한때 그리워했지만 지금은 안 그렇지요. '요새는 소원하고 멀어진 것 같아.'

더 쉽게. '우리 집에 화장실이 있다.'는 이 말과 '지금 나는 용변 보고 싶다.' 뭐가 다르지요? 화장실 있다고 시도 때도 없이 바지 내리고 화장실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화장실이 없으면 용변이라는 의지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까? 아니지요.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것은 분명히 비슷한 것 같은 항상 따로지요. '우리 집에 화장실이 있다'와 '내가 용변 보고 싶다'와 뭐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노선은 서로 섞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있다'만 할 때는 이것은 '화장실이 있다', '나에게도 남자가 있다'라고 하는 존재론

적 의미의 천국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국은 지옥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땅과 관련돼 있을 때 존재론적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천국이 어딘데요? 그러면 천국을 보통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은 보통 나라인데 그 앞에 뭘 집어넣습니까?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있다는 것은 이 지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상에 없으면 죽어서 가는 데냐고 따지게 되면, 존재론적으로 보지 말고 기능적으로 보면, 이미 천국은 활동을 시작하고 있지요. 그러니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맞지만 천국은 기능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를 기능과 섞어버리면 여기서 엉터리 논리가 막 튀어나오고 혼선이 벌어지고 자기는 헛갈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자 동창생 만나서 ‘나 요새 남자있어.’ ‘나도 남자 있어.’ ‘일주일 몇 번 만나는데?’ ‘석 달에 한 번 만나는가 몰라.’ ‘그거는 곧 헤어지겠네.’ 남자가 있고, 없고는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의 문제지만 그리워한다는 문제는, 과거가 어떻게든 미래에 그리워할 것 조차라도 지금 그리워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천국과 땅에 관한 주제가 아닙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주제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런 차이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야까 예를 들었지만 자크를 내리면 톱니바퀴가 양쪽으로 갈라지잖아요. 자크 내리는 천국의 기능이 곧 지옥이 발생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지옥의 기능이 그 짝이 되는 천국이 발생하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성경구절을 다같이 찾아봅시다. 성경 안 가져왔어요? 집에는 있지요. 그런데 성경이 보고 싶지는 않지요. 기능적으로. 죽어서 천국은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기는 싫지요. 기능적으로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대목에서 어떻게 천국이 나오고 지옥이 나오느냐? 아무리 봐도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거기서 무슨 천국과 지옥이 나오겠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우선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논리를 던지겠습니다.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피조물 맞지요. 분명히 피조물 맞지요. 논리를 보다가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모든 천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악마가 나오고 선한 천사도 여기서 나왔지요. 그러면 악마를 악한 천사란 말이죠. ‘선함’, ‘악함’을 잠시 없애버리면 둘 다 천사죠. 그래서 천사라는 자크를 내리면 여기서 뭐가 갈라집니까?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갈라지겠

지요.

지옥은 어디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일을 맡기면 잠재돼있던 그런 구분들이 구체화되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엔 누가 가도록 돼있느냐 하면, 지옥은 악마를 가둬두기 위한 장소예요. 그러면 지옥이 있다는 말은 지옥에 들어갈 자들, 피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옥이란 지옥에 들어갈 주인공과 더불어서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는 겁니다.

안개가 자욱이 끼여 있는데 어떤 여인이 우산을 들고 온단 말이죠. 여기 있는 총각 셋이 관심을 보입니다. 보통 상식에서는 그 여인이 아름다울까, 안 아름다울까에 관심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은 특이해서 저 파라솔의 색깔이 뭘까에 관심을 둡니다. 드디어 가까이 오니까 이 파라솔이 노란색이었다고 등장합니다.

악마라는 것이 그 정체를 하나님께서 기능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 기능은 본문 읽었던 기능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기능이니까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언약적인 기능입니다. 서서히 거기서 악마의 정체가 나오는데 오늘 할 논쟁의 초점은 악마가 얼마나 나쁘냐가 아니라 아까 여인이 들고 있는 파라솔이란 엉뚱한 것에 잠시 관심을 두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악마가 얼마나 나빠, 악마가 무슨 일을 해? 우린 그런데 관심 두는데 오늘 주제가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에 악마가 들어가야 될 그 지옥은 대체 어떤 곳이나를 약간 엉뚱한 발상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악마를 이야기하면서 악마의 정체를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고 악마가 들어가야 될 곳이 안개 속에 있으니까 처음에는 흐릿하다가 점점 더 윤곽이 드러나는 것은, 처음에는 지옥이 흐릿하게 나타나다가 점점 더 언약적인 배경 위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게 되면 지옥의 정체가 점점 뚜렷하게 등장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자 말이죠. 왜? 오늘 주제가 악마에 관한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말이에요.

논리를 더 꼬집어내보겠습니다. 여기서 공식을 하나 꼬집어냅시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 모습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가미된다. 그러면 이것은 언약이 추가될 때마다 천국의 윤곽도 뚜렷하고, 지옥의 윤곽도 뚜렷하겠지요. 그렇다면 언약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때마다 천국과 지옥이 뚜렷하다는 이 공식 하나와 두 번째 공식이 뭐냐 하면, 천국은 지옥을 나타내지 않고 나타내는 법은 없고, 지옥은 천국을 나타내지 않고 나타내는 법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면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화장실, 용변 이야기했죠. 이것이 존재가 아니고 기능적이어서 지옥은 어디 있느냐고 자꾸 묻지를 말란 말이죠. 사울이 지옥 갔느냐고 묻지 말란 말이죠.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이 광야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못 간 사람은 지옥 갔느냐고 묻지를 말라 말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간 20세 이상 된 사람들 40년 동안 완전히 뺨뺨이 치다가 다 죽었지요.

그 중에 모세도 포함도 돼 있잖아요. 그럼 모세 지옥 갔습니까? 변화산에 보세요. 엘리야와 주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약속의 땅에 가지도 못했는데 왜 천국 가 있어요? 무슨 뺨으로. 주님께서 지팡이로 지시하라 했는데 무슨 오기로 지팡이로 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킨 못 된 모세가 왜 천국에 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교회에서 강의할 때 천국은 그렇게 못 된 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못 돼야 자기의 의를 두 번 다시 안 내세울 것 아닙니까. ‘항상 나는 하여튼 주의 말씀을 지킨 적이 없어.’ 라고 자인하는 사람만 천국 갑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을 지켰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에 비취보니까 또 틀렸고, 에베소서 2장, 3장 지켰다고 장담해보니까 디모테전서 1장 보니 하나님의 양에 미치지 않고 그런 겁니다.

원칙이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언약이 가미되면 여기서 반드시 계속해서 윤곽이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천국 없이 지옥 없고, 지옥 없이 천국 없다 했지요.

이걸 더 노골적으로 쉽게 말하면 누구 하나 천국 가기로 확정돼있으면 누구 하나 지옥 가기로 확정이 돼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카드로 주유소에서 결제하게 되면 뒤에 붙은 종이에 석 장, 닉 장 붙어있지요. 그 종이는 어디에 붙어있는 겁니까? 원래 제일 위에 사인하는 종이에 붙어 있잖아요. 앞의 종이는 천국 가면 뒤의 종이는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제 자식 천국 가게 됐어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개 때문에 이웃 집 애 지옥가게 됐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걸 추적해보자 말이죠. 왜 천국, 지옥 따로 따로 놀지 않고 병행해서 등장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생명책과 관련돼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봤느냐 하면, 생명책의 존재를 봤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의 명단에 있는 사람에게 한해서만 언약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기능이 아니고 존재로 묻죠. ‘목사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구원받죠?’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 가지요.’라고 존재로 하는 게 아니고 방금 첫 번째 원칙 이야기했죠. 뭘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첫 번째 원칙은 언약이 가미되면 안개 속에 있던 그 여인의 우산이 색깔이 드러나는 것처럼 서서히 생명책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강의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새로 합시다.

천사가 있다 했지요. 천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면 천사가 갑자기 갈라지죠.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로 갈라지잖아요. 가만있으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면 하나님 일에 반발하면 악마고, 거기에 순종하면 선한 천사되죠. 그러니까 선한 천사, 악한 천사 오기 전까지는 그냥 천사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생명책이란 게 그냥 있으면 우린 이걸 뭐로 보느냐 하면, ‘천사가 있네.’ 존재 아닙니까. ‘난 천사가 있는 걸 믿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믿다가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개입해버리면 존재가 기능으로 변하면서 천사라도 다 좋은 천사가 아니라는 새로운 윤곽이 밝혀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 개념이 다 그래요. 생명책이라는 게 있다. ‘있으면 구원받겠네. 명단에 있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존재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만 그 다음에 언약이 주어지는데 그 언약이 모세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모세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모세언약이 주어져버리면 여기서 생명책 자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명단이 지워져야 될 들로 나눠져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남아 있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겠네요.’라고 생각하겠지요. 스톱, 스톱. 진정하세요. 그 다음 언약이 주어져버리면 남아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또 갈라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되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져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오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저주잖아요. 어디가야 됩니까? 다 지옥가야 됩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이야기하면, 지옥 갈 사람이 성경책에 모세가 봤다는 생명책에 명단이 있다는 걸 알고서 자기 주제가 지옥 갈 인간이 자기 주제 파악도 안 하고 성급하게 명단에 내 이름 있으니까 잘만 버티면 나는 구원될 수 있다는 그런 오해를 유발시키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오해를 가지고 신학을 하는 것이 또 가만있는 아주 점잖고 착한 개혁주의가 욕 얻어먹게 돼요. 개혁주의는 기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봉사하려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존재론적으로 당신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구원받는다고 다 해주는 거예요.

왜 사람은 기능으로 보지 못하고, 갈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왜 자꾸 존재로 나가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벌써 신약을 볼 때 맹탕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볼 때 장난삼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질곡과 고난과 저주 받은 세상에서 고생했는데 죽어선 좋은데 가야지.’ 토정비결 보듯이 또는 점치듯이 ‘목사님. 제 운명 나아지겠습니까?’라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필히 구원받는다든 대목이 어디 적혀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해당되지 않는 누구로부터? 나를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아브람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람의 하나님은 상상도 못한 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누가 깨져야 합니까? 아브람의 하나님은 이단입니다.

아브람의 하나님은 혈육에서부터 출발해요. 혈육이야기는 의존교회에서 했네. 의존교회에서 학생에게 ‘너 몇 살 때 태어났지?’ 그러니까 그 애가 말 못했죠. 왜 말 못합니까? 몇 살이라는 것은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그 앞에 사건이 있어야 그 사건부터 흘러가는 게 시간입니다.

다. 태어남의 사건이 있고, 그 태어남을 잡아당길 때 이게 시간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사건을 뭐로 대체하느냐 하면, 이걸 경주 이씨로 대체해버리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사건에 합당한 시간이 시작될 걸 사건을 흐지부지하게 만들어버리고 여기다가 우리 조상님은 옛날부터 있었다고 우리 아버지 태어난 것부터 계산하게 되면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탄생했다는 새로운 사건에 속하지 않고 경주 이씨라는 가문에 속한 게 되죠.

여러분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해할 생각 없거든요. 그냥 막 나갑니다.

아브람은 혈육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내 아들 됨의 사건은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람은 죽고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개입돼야 새롭게 발생하는 존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존재로부터 출발할 것과 연관된 이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안 되고 이삭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삭은 누구한테 바쳐라? 내게 바치란 말은 주인한테 돌려주란 말이거든요. 어디 남의 것을 자기 아들이라고 해. 내 아들인데. 약속의 자식이자 혈육의 자식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잖아요. 약속의 노선과 혈육의 노선, 율법의 노선 있잖아요. 또 이걸 보고 가만있는 공부하는 애 붙들고 교회 가려하지 마세요.

사건이라 하는 것은 그 전과 후에 인과관계가 없어야 사건이에요. 예상하면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기존의 역사에 포함돼버려요. 이 중에 누가 방구 튀어야 되는데 이런 방구는 사건이 아니에요. 난데없이 지붕이 무너질 때 이건 사건이에요. 왜? 아무도 지붕 무너지리라 생각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911은 사건이잖아요. 이걸 만약 알았으면 미국 제트기가 방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언약에 개입할 때는 생각지도 못한 걸 개입하는 겁니다. 만약에 악마가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자기가 악마라는 걸 들통 내기 위한 사건을 준다는 걸 사전에 알았다면 악마는 그때 순종했을 겁니다. 악마로 안 들키려고. 악마는 누구처럼 아주 점잖은 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욥에게 믿음을 쥐버리니까 악마는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왔을 때 ‘어이. 욥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치고 믿음 있는 놈 누가 있습니까?’ 갑자기 악마가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좋다고 들켰지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마의 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자크 열리듯이 한쪽은 이단이었고, 한쪽은 정통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사건이 우선돼야 돼요. 사건이 우선되면 욥의 친구들이 이단의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들통 나는 그 역사는 어느 역사 때문입니까? 욥에게 고난 떨어진 사건에 준해서 사건에 포함되는 사건에 대해서 합류되는 욥의 역사 속에 욥의 세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욥의 마지막에 보면, ‘욥아. 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욥의

친구들 너희는 욥을 위해서 욥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서 잘못됐다고 해라.’

그럼 욥의 세 친구의 사건은 결국 자기 사건은 날아가고, 욥에게 일어난 사건이 욥의 사건으로 국한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구원받고자 하는 사건으로 퍼지게 되죠. 마치 화산 터지면 마그마가 퍼지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주민들 다 대피하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돼버리면 우리는 농사짓고, 교사 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사건이 덮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사건으로 덮쳐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걸 소급해서 보면 결국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다가 붙잡혀서 자살을 못한 게 있더라도 소급해보면 결국 그것은 내 사건이 아니고 주님의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분명히 천국 갈 것이라고 여겼는데 주님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같은 교회 친구고 같은 집사인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크를 열어보니까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건이 오더라도 피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건이 우리의 인과관련 없기 때문에 번개가 오는 게 보입니까? ‘번개 도착 2초전’ 이라면 피하죠. ‘번개 도착 지금 50미터 전, 번개가 푸르시오까지 왔습니다.’ 이라면 피하죠. 그게 아니잖아요.

이준 씨가 인용한 제 [피]라는 책에 보면, 1945년 8월 6일 초등학교 학생이 등교 길에 갑자기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죠. 왜 그 학생의 담임선생님은 전날에 ‘내일 아침에 조심해라. 히로시마에 폭탄 터진다.’ 그 이야기를 왜 하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은 자기 역사밖에 모르죠. 맥아더 역사를 몰라요. 미국군대 최고사령부의 역사를 모른다니까요. 초등학교도 몰랐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걸 소급해서 예수님의 역사로 전환시켜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 된 부분에 접근하고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어렵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려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합니까? 죽은 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하나님이나를 필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크 열려서 천국 쪽으로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그랬죠. 야곱이 그랬죠.

하나님의 사건이 터져서 본의 아니게 떨어져보니까 천국이라. 모세에게 사건 떨어지니까 모세는 천국이고, 엘리야에게 사건 떨어지니까 엘리야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교회에서 강의 하면서 했잖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성경말씀을 오해했는지 자기만 남았데. 그런 인간이 천국을 다 갑니까? 남은 칠천 명은 모르고. 성경해석 또 잘못된 거예요. 자기 경험에 의존해서, 자기 존재에 의존해서 생각한 거예요.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뭐 나밖에? 칠천 명 남겨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 같으면 뭐라고 따지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그 사실을 나한테 알려주지. 선지자의 자존심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선지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여러분 저만 남았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하는데 칠천 명이 있다가 ‘어? 아님데.’ 그러면 선지자의 설교가 먹어줍니까? 안 먹어주잖아요. 하나님은 쪼다 만들기에요. 하나님은 실수와 쪼다, 바보,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건입니다. 사건이란 말은 다른 사건에 의해서 자크 열리듯이 이렇게 마주보는 이루어질 천국이 아닌 지옥 같 사람들을 비로소 훤히 보이게 하는 어떤 갈라짐의 코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하면 더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해봅시다. 도로로 가는데 여기 [회덕분기점]이에요. 회덕분기점, 전에 설교한 적 있지요. 이름은 있는데 실체는 없는 것. 회덕분기점에서 누구 기다려보세요. 아무도 안 만나지. 그런데 이쪽에서는 회덕분기점을 올 때 분명히 차와 같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쪽은 전라도, 이쪽은 경상도로 대전에서 갈라져버리죠.

이렇게 훤히 갈라질 때 편애하는 것 아닙니다. 편의상 경상도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합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봤을 때 반드시 여기 접어든 사람은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것,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멀찍이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노선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사울이 왕 될 때 겸손해서 산당 속에 들어갔지요. 나 같은 인간은 왕이 될 수 없다고 겸손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왕이 됐는데 그때 그 당시의 사울의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됩니까? 왕이 되려는 인간들과 자기 자신의 노선과 회덕분기점은 보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면, ‘그래도 사울은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기능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또 존재론 나오죠. 그러면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분기점 또 나옵니다. 분명히 자기는 저건 아니라고 했는데 오백 킬로 쭉 가다가 또 갈라지네. 이쪽은 부산으로 저쪽은 남해로.

그러면 사울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사울은 안 좋은 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다윗이 등장하죠. 이렇게 갈라질 때 사건이 개입되게 되면 지금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사건에 의해서 왔던 사건이라도 이 사건이 인간의 주체를 만나면 이것이 우상이 돼버려요.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얼마나 겸손한지 왕 되기 싫는데 하나님이 왕 되게 했기 때문에 이걸 누가 뭐래도 나는 왕이야.’

부흥사들 그러잖아요. 육이오 때 폭탄 맞았는데 다른 사람은 죽었는데 자기는 살았을 때 ‘아무개 목사야. 너는 나가 복음을 전하라.’ ‘나는 부흥사 맞아.’ 그게 아직 회덕분기점 안 지나서 그래요.

이건 안산강의에서 했는데 해봅시다. 주체가 사건을 만나게 되면 주체는 거기서 진리를 끄

집어내요. 진리는 유동성이 아닙니다. ‘두 번 다시 사랑 안 해. 애인 따윈 필요 없어.’ 노래 있지요. 이건 뭐냐? 고정성이예요. ‘두 번 다시 사랑 안 해. 애인 따윈 필요 없어.’ 왜냐? 애인한테 치였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 더 이상 나는 절대로 누구를 사귀지 않겠다. 이게 고정성이예요. 고정돼야 이게 진리답죠.

그래서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극을 받아서 이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품으면서 여기서 주체가 주체성으로 확립합니다. 한 고집하죠. ‘이래 봐도 나는 옛날에 기도 해서 교육관 진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뭐가 진리입니까? 기도해서 교육관 진 게 진리죠.

재건과 목사님들의 진리가 뭐니까? 성경도 아니고 뭐가 계시예요?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은 목사들로부터 안수 받았다는 그 사건을 집단적인 주체로 만들어버리면 거기서 주체성이 형성되죠. 그 사람들에게겐 성경이고 뭐고 재건파는 성경이 없어요. 뭐가 계시입니까? 현재 재건파가 진리가 돼버려요.

우리 십자가마을은 분기점 지나왔습니다. 손무성 목사라는 분기점 지나왔는데 분기점 지나왔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해서 복음으로만 사수했습니다.’라고 우기게 되면 여기서 주체를 찾아버리면 십자가마을은 뭐가 돼요? 주체성을 갖고 있는 순간 십자가마을은 우상 돼요. 십자가마을이 우상이라는 걸 아는 우리는 얼마나 즐거우냐? 왜? 천국에는 못한 사람, 오해한 사람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체성 세우는 것이 뭐가 나쁘냐? 모든 인간이 다 그런데. 사건은 이렇게 주체가 있으면 이걸 찢어버립니다. 사건이 하나님인 어떤 하나님입니까? 존재론적 하나님이 아니고 기능적 하나님 앞에 뭐가 붙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풀잎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풀잎을 안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난 믿습니다. 태양을 만든.’ 태양을 만든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오해할 소지를 갖고 있어요.

다시 돌아갑시다. 생명책 봤지요. 생명책에 이스라엘 명단이 있지요. 그걸 본 순간 무슨 오해를 합니까? 생명책에 우리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썼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방인 같이 개가 아니고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고 장담했지요. 다 망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망했잖아요.

아브람의 하나님이란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했지요. 아브람의 하나님은 혈육에 속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에 속했죠. 약속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의 기능으로 나타날 때는 이게 사건 되죠.

왜 사건이냐? 사건이 일어나야 우리 주체, 천국 쪽과 지옥 쪽이 자크 열리면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도대체 어떤 자가 지옥 가느냐를 동시에 발견케 하는 계기를 주는데 사람들은 자기 좋은 쪽으로 붙어서 자기 구원에 성급하다보니까 어떤 자기 지옥 가느냐에 대해서는 순전히 자기 존재론 입장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저쪽에 봐라. 우리 사이트 욱하더니 망했잖아요. 항상 주님이 보낼 지옥을 누가 보냅니까? 나에게 험담했고, 나 죽으라고 저주했기 때문에 네가 저주받으라고 욱하는 식으로 ‘저거는 지옥 가야 돼.’라고 우리는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저주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라는 말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새로운 사건이 덮친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편에 보면 다윗이 ‘저들은 저주받아야 돼.’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자리에 가지 않은 사람은 그 저주를 못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리에 가면 될 것 아니냐?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준 거예요. 다윗 아들도 아니고, 다윗 처조카도 아니고, 다윗 동서도 아닙니다. 오직 다윗이에요. 다윗 처조카가 만약에 같이 은혜 받으면 다윗과 다윗 처조카의 언약이 나올 거예요.

다윗에게 줄 때 이 다윗은, 다윗이 알고 있던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알고 있던 다윗은 혈육에 속하고, 어떤 진리를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스스로 이상화 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인 시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을 인간 만들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간 만들고, 이삭을 통해서 인간 만들 때 무슨 인간을 만드느냐 하면, 죄인이라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려요.

야곱이란 인간을 죄인이란 인간 만들잖아요. 처음에 야곱은 둘 다 잘났다고 누구와 싸웁니까? 에서와 붙들고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나 죄인 맞다한 사람이 승리잖아요. 누구니까? 죄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대해야 되는데 에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압복 강에서 누가 만납니까? 야곱이 하나님 만나죠.

그때 야곱은 형은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형한테 절한 거예요.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절할 때 생각 똑바로 먹어야 됩니다. 좋아서 절한 게 아니에요. ‘저 인간은 저 좋은 대로 해줘라.’ 하는 식으로 절할 수 있습니다. 논쟁할 때 감정싸움 들어가면 먼저 꼬리 내리는 쪽이 승리자예요. ‘알았다. 그래 잘났다. 잘났어. 그런다고 십자가 피가 효능이 사라지나.’

천국과 고자의 관계는 제가 분명히 했다고요. 십자가의 완료성이 어디로 가버렸느냐 말이죠. 왜 자꾸 고자를 논하느냐?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우리가 고자 되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존재론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모든 기능은 마지막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아납니까. 새 언약은 뭐로 구성돼 있다?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은 아무도 세상의 지혜와 똑똑함으로 그걸 알 자가 없어요. 왜? 세상의 지혜는 그걸 어리석게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제대로 된 깊이 있는 알맹이는 십자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원하노라.

정리해봅시다. 하나님은 사건을 주는데 우리는 기능을 모르죠. 우리는 항상 주체가 있기 때문에 주체는 뭐가 있어야 주체가 됩니까? 내 존재, ‘나는 구원받습니까?’ 만날 자기 존재로

부터 시작하는 게 주체의 특징이에요.

이 존재를 기능으로 치기 때문에 존재가 알아서 기능을 마중 나가는 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
다.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기도원에 가서 도 닦고 있고. 그게 뭐니까? 도 닦는 나의 존재로
또 돌아오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가만있으란 말이에요. 가만있으면 주께서 알아서
말씀이 덮치면 뭔가 터지면서 이게 부인하는 거구나라고 소급해서 생각하면 돼요.

사건이 기능으로 와서 주체를 존재로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오해했었던 나는 정상적인
노선을 기능을 오해하게 되면 여기서 갈라짐이 있죠. 나도 전에 저렇게 생각했었는데 주님
의 새로운 사건이 덮치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의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라고 폭로시키는 사
건으로 회덕분기점 이쪽 노선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여기 궁금한 게 뭐니까? 안 좋은 쪽을 편의상 전라도라 한 이쪽에 서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상도 사는 사람보고 '당신은 왜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왜 네 할
일 안 하느냐? 왜 자꾸 네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없느냐? 착한 일 하라고 성령 줬는데 왜
그것으로 착한 일 안 하고 자꾸 나는 부족하다, 죄인이라고 그 소리만 하는 거야.'라고 이단
쪽에서 하겠지요.

저쪽은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하면, '십자가 알지.' 십자가 안다 해놓고
그 십자가가 자기 주체에 대한 어떠한 깨어짐이 없지요. 그래서 제가 최근 쓴 글에 이랬어
요. 땡땡한 밀가루 포대를 하나님이 사건으로 면도칼로 찢어버리면 허연 가루가 쏟아지죠.
주님께서 주체 한 복판을 찢고 찢습니다. 골수와 관절을 말씀으로 찢러요. 로마서 2장 5절
같으면 똑같은 말씀을 백 번 볼 때마다 성령이 임하면 99번 봤을 때 주체를 백 번째 주체
가 그것마저 또 찢어버리죠.

내가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했을 때 몇 번 용서하라 합니까? 490번.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490번 합니까. 일곱 번까지 했는데 490번 못 합니까? 490번 하면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은 뻔해요. 490번씩 일곱 번 하라 해요. 왜냐하면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 사건
이 없는 이상은 초창기 사건, 그 사건에서 발생된 것은 이미 주체화 된 나의 역사죠. 나의
역사 속에 일곱 번 용서했기 때문에 일곱 번 용서한 업적, 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
포기하면 나의 주체는 어디서 찾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이 주체를 계속 끌고 가
잖아요. 끌고 가면 그 다음에 세리와 창녀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잘난 사람끼리 지옥가고 못난 사람끼리 천국 가고.

10분 쉽시다.